

2020년 12월 가정통신문

안녕하십니까?

누구나 마무리 할 수 없는 한가지 과제를 가지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
올해 코로나19가 색다른 경험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,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하는 계기가 된건 분명한거 같습니다.
그 경험이 주위에도 전달되어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.

코로나19로

인해, 어르신들도 실내에서만 보내셨지만 다행히 건강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새해에는 무탈한 환경에서 더 많은 경험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길 기대하면서,
가정에서도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


"운동 하는 날"을 맞이하여 각자 율놀이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신체와 인지가 약간의 긴장으로 즐거움이 두배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.

